

TV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토크쇼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욕중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토크쇼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신년특집 생방송 오늘 아침	0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황홀한 이웃>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셜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토크쇼	40 결혼이야기(재)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네트워킹 특선 보물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5 다큐멘터리 3일(재)	00 찾아와 맛있는 TV 스페셜	10 KBC 생활뉴스 30 한국의맛
12 40 채널A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운말	05 위기탈출 넘버원(재)	00 MBC 정오뉴스 20 문화 특집	00 SBS 12 뉴스 45 닥터 365 55 신한국비경(재)
1 김부정의 뉴스통	00 대조영(재) 55 TV동화 빨간 자전거(재)	00 황금의 펜타곤 2(재)	05 TV속의 TV	55 날씨와 생활
2 50 직언직설	00 콘서트 7080(재)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신년특집 오늘, 미래를 만나다(재)	05 내꺼야 플록 25 똑똑 키즈스쿨 55 MBC 뉴스	00 네트워킹현장 고희영 보인다
3	15 바른말 고운말(재) 20 TV, 책을 보다(재)	4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05 헬로키티 놀라운 자연 이야기(재) 55 아옹다옹 동화나라	00 SBS 뉴스 10 절망과 잘 사는 법 식사 하세요?(재)
4 00 정운관의 시사병법	00 KBS 뉴스 4 10 다큐 공감(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 TV 유치원	25 MBC 일일특집 기획 <압구정 백야>(재)	00 꿈의 라이브 프리즘스톤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하종대의 쾌도난마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10 꼬마기차 추추 40 동물의 세계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파이드 15 KBC 저녁 뉴스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생생 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관찰카메라 24시간(재)	00 KBS 뉴스 7 30 시사현장 맥 55 집중인터뷰 이사람	50 일일 드라마 <달콤한 비밀>	15 일일연속극 <물결의 차여사>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따 55 닥터365 <달라라 정미>
8 20 갈데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사랑>	30 결혼이야기 55 1대100	55 MBC 일일특집 기획 <압구정 백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SBS뉴스토리
9 30 채널A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올리>	00 월화특집 기획 <올리>	00 SBS 대기획 <편지>
11 00 모쿠드라마 <싸인>	00 KBS 뉴스라인 40 생명최전선	10 우리동네 예제능	15 신년특집 PD수첩 <이기가 없는 나라 1부>	15 토크메이트
12 10 실화 극장 그날(재) ①:20 먹거리 X파일(재)	30 독립영화관 <2015 신년기획> <절친한 재개발>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영상앨범 산(재)	10 MBC 뉴스 24 20 신년특집 MBC 100분 토론 ①:45 고향이 좋다 스페셜	35 나이트 라인 ①:05 특집다큐 <SAF 10일간의 기록>



“탈북합창단 이어 미생합창단 도전”

KBS '그날에...' 8~9일 밤 10시 방영

가수 이승철과 탈북 청년 42명이 광복절 하루 전날 독도를 찾아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를 부른다. 이들은 국내를 넘어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미국 유엔본부와 '세계 최고의 상아탑' 하버드대학에서도 공연을 펼친다. 이승철은 공연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던 중 모친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다. 일본 공황에선 입국을 거부당하고 그것이 이 독도에서의 공연과 관련 있다는 논란이 들끓었다. 지난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이승철과 탈북청소년합창단 '위드유'의 독도 공연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8~9일 밤 10시 KBS 1TV에서 신년특집기획으로 방영된다. '그날에-이승철과 탈북청소년합창단 42인의 하모니'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이승철과 위드유가 8개월간 공연을 준비해 독도에서 선보이기까지의 험난한 과정을 담았다. 소년 재소자 합창단, 대안학교 합창단 등을 이끈 이승철이 이번에 탈북 청년들과 합창 공연을 한다는 소식은 방영 전부터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 일본에서의 입국 거부 사건이 불거지며 이승철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일련의 사건에 휘말린 이승철은 "합창단 제의를 받고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거절했다"고 뒷얘기를 밝혔다. "독도는 정치적이고 가수가 쉽게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게 그가 밝힌 이유다. 그러나 20대 탈북청년들이 주축이 된 위드유 합창단원들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수락하면서 공연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승철은 "원래는 합창 지도만 하려 했는데 하다 보니 정이 들었다. (단원들만) 독도에 보내려니 마음이 무거웠다.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돼 같이 갔다. 그다음에는 너희의 꿈이 더 크게 실현되려면 세계 인권의 중심지에서 노래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한 것이 유엔과 하버드대 공연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얘기처럼 준비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단원들의 마음을 얻기가 제일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위드유를 더 유명하고 만들고 싶고, 더 넓은 세상에 데리고 나가고 싶는데 단원들은 부담스러워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라는 생각에 섭섭했다." 이에 대해 위드 유 단원인 강원철 씨는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갖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

그는 "가수생활 한지" 30년 됐다. 소셜메이커 같은 거창한 단어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에 이바지하고 후배들에게 교훈이 될 일을 해보자 싶다. 그게 합창단이기도 하고 기부 활동이기도 하다. 오히려 입국 거부 사건이 좋은 일을 할 기회를 만들어줬다. 사회에 제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승철과 위드유 합창단의 활동은 TV 방영 이후에도 계속된다. 이승철은 "해의 스타들에게 콜라베이션(협업)을 제안하는 편지를 보냈다. 2~3개월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온 캠페인'이라고 이름붙인 이 활동을 통일을 향한 길까지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철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신의 새해 활동 계획도 밝혔다. 이승철은 12월 새 싱글 '해낼 수 있다'를 발표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이승철은 "스스로를 '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래"라고 말했다. 뮤직비디오도 드라마 '미생'의 영상 일부를 활용해 만들었다. 이승철은 '미생 합창단' 운영 계획도 밝혔다. 자신이 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합창단원을 뽑아 음반을 만들고 오는 25일 공연도 한다는 것이다. 이승철은 "드라마 '미생'을 즐겨 시청했다. 드라마로 미생의 사연을 간접 경험하면서 이들을 응원할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부모광장)	15:00 신나는 요정 학교	19:30 EBS뉴스
05:40 성공 인생후반전	10:10 EBS 특강	15:15 지구를 지켜라	19:50 극한집안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5:30 올리비아	20:40 디큐 오늘
07:00 코코몽2(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45 피터 래빗	20:50 세계테마기행 <일본의 맛을 찾아서, 규슈>
07:15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11:20 세계테마기행	16:00 당동명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07:30 풍선 코끼리 발루보(재)	12:00 EBS 정오 뉴스	16: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21:50 EBS 다큐프라임 <신년특집 교육대기획 공부 못하는 아이>
07:45 꼬마버스 타요(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재)	16:35 오스카의 오아시스	22:45 리얼극장 <아머니>
08:00 당동명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45 곰피와 친구들(재)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08:20 두다디(재)	13:10 초등 1년 겨울방학생활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24:05 지식채널e(재)
08:35 방귀대장 뽕뽕이	13:30 초등 3년 겨울방학생활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보	24:10 광복 70년 특별기획 신년특집 EBS 인문학 특강
08:50 곰피와 친구들	13:50 초등 5년 겨울방학생활	17:30 꼬마버스 타요(재)	
09:05 윈더볼츠(재)	14:10 쇼트트랙 웨어아 놀자	17:45 두다디(재)	
09:20 출동! 슈퍼원즈(재)	14:30 부릉! 부릉! 부릉미즈	18:00 생방송 특!특! 보너스	
09:35 아기 고릴라 동동	14:45 코코몽2	19:00 지파이터스	

EBS플러스1

00:00 2016 수능열기	12:10 2016 수능개념 <윤영주의 영어>
00:50 <유중현, 윤선명의 국어>	13:05 <윤정환의 영어>
01:40 <오광석의 수학 I>	14:00 고등예비과정 <김소연의 수학II>
02:30 수능김집이<문학>	15:40 2016 수능열기 <오렌지의 영어>
03:20 <수학 I>	16:30 <유중현, 윤선명의 국어>
04:10 <미적분과 통계기본>	17:20 <오광석의 수학 I>
05:00 <영어특해 유형>	18:10 고등예비과정 <장동진의 국어>
06:40 <박근영의 미적분 I>	19:20 <최은진의 수학 I>
07:30 <차현우의 미적분II>	20:00 <김소연의 수학II>
08:20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20:50 <추혜연의 영어>
09:10 <독서와 문법>	21:50 수능김집이
10:00 고등예비과정 <장동진의 국어>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10:50 <최은진의 수학 I>	22:50 리얼체험 탐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23:00 2016 수능개념 <추혜연의 영어>

EBS플러스2

07:00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시험대비	15:40 초등 3년 겨울방학생활
07:30 친절한 수학 익힘풀이 5-2	16:00 초등 5년 겨울방학생활
08:0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2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08:30 검정고시교육 강좌	16:50 한자교육 드라마
09:00 출가운 수학 EBS MATH	<어린이 손자범법>
09:10 중학예비과정 <국어①②>	17:20 백점공략 중학수학2
09:50 <국어③④>	18:00 중학예비과정 <수학③>
10:30 <영어①>	18:40 <영어③>
11:10 <수학①>	19:20 필독 중학 한국어사
11:50 <국어⑤⑥>	20:00 EBS 기획특강
12:30 <영어②>	20:50 EBS 기획시리즈
13:10 <수학②>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3:50 중학 m포스 수학1	22:00 중학예비과정 <국어①②>
14:30 중학 m포스 수학2	22:40 <국어③④>
15:20 초등 1년 겨울방학생활	23:20 중학 e포스 영문법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6일(음 11월 16일 壬午)

子	48년생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고마운 이가 있다. 60년생 막판 뒤집기가 될 수도 있으니 끝까지 겨루어야 한다. 72년생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다. 84년생 주관적인 시각에 사로잡힌다면 소모적이다. 행운의 숫자 : 92, 48	午	42년생 음악이 쌓이면 복이 되는 법이다. 54년생 기쁨을 철저히 유지하지 않으면 아니 되니라. 66년생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78년생 거시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계획한 후에 추진하자. 행운의 숫자 : 36, 05
丑	49년생 필요하다면 개이지 말고 조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1년생 핵심만 바꾸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하자. 73년생 생각만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실행해 보자. 85년생 남에게 보이며 하지 말고 소신껏 행하라. 행운의 숫자 : 20, 80	未	43년생 결단을 실행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55년생 특수한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67년생 먼 시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절실하다. 79년생 임의적이고 가변성이 강하니 집착할 필요는 없으니라. 행운의 숫자 : 09, 70
寅	38년생 급하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50년생 서서히 일어나는 형상이다. 62년생 자세하게 검토하자. 74년생 여태까지 누적이었던 것이 한꺼번에 드러나리라. 86년생 상대적으로 시험 당할 수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81, 98	申	44년생 현실로 이루어지는 도량이다. 56년생 없던 것이 생겨나서 그나마 괜찮겠다. 68년생 굳이 노출할 필요까지는 없으니 전혀 내색하지 말고 잠자코만 있으면 된다. 80년생 서로 불일치하는 대목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1, 37
卯	39년생 부담스러웠던 짐을 덜게 될 것이다. 51년생 문제점이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래 가겠다. 63년생 지연되어 왔던 것이 해결 될 수다. 75년생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다. 87년생 증가일로에 있다. 행운의 숫자 : 60, 11	酉	45년생 결실이 깊은 속까지 꼭 차 있었다. 57년생 쾌도난마 해야 할 판세가 되었는데. 69년생 현 단계에서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리니 다방면으로 살펴보자. 81년생 견디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7, 12
辰	40년생 기본에 충실하면 만사가 안정적이다. 52년생 실효적이 아니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64년생 결정적인 때란 얻기는 어렵고 잃기는 쉬운 법이다. 76년생 술신수렴하는 것이 실효적이고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18, 27	戌	46년생 진로의 행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 보인다. 58년생 기복이 없이 평탄한 일상의 반복이어서 지루할 수 있겠다. 70년생 세밀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허점을 낳는다. 82년생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72, 78
巳	41년생 마음이 들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낫다. 53년생 반드시 이익이 따르게 되어 있으니라. 65년생 관련연단만 고달볼 것이니 가급적 피하자. 77년생 상황이 타자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61, 02	亥	47년생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59년생 편견을 버리지 못하는 이 때문에 애를 먹었다. 71년생 정지한 완성을 필요로 한다. 83년생 이랬다저랬다 해서 감미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9, 9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오랜 꿈 이뤘으니 화이팅 해야죠~”

개그우먼 이국주 SBS '영스트리트' DJ



호로록. 적은 양의 액체나 곡수 따위를 가볍고, 빠르게 들이마시는 소리나 그 모양이라고 국어사전은 정의한다. "적은"이라는 수식어만 빼면 '호로록'만큼 개그우먼 이국주(29)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를 좀처럼 찾기 어렵다. 개그면 개그, 진행이면 진행, 광고면 광고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무서운 만지 '호로록' 빨아들이는 이국주는 작년 한 해만 큰 가장 대세인 개그우먼이 됐다. 작년 초 케이블 채널 tvN의 개그프로그램 '코미디 빅리그'에서 배우 김보성을 흉내 낸 '오리로' 보성때로 주목받기 시작한 이국주는 '호로록' 등의 유행어를 쏟아냈다. 2006년 데뷔한 뒤 오랜 무명 생활 끝에 화려한 전성시대를 맞은 이국주는 새해에도 그 여세를 계속 몰아갈 예정이다. 육중한 몸집도 허스키한 목소리도 결코 밍지 않은, 불수용 매력 넘치는 이국주는 5일 오전 양천구 목동 SBS 사옥에서 만났다. 자기 이름을 건 라디오 프로그램인 SBS 파워FM '이국주의 영스트리트' DJ 발탁을 기념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 이날은 그의 서른 번째 생일이기도 하다. "옛날에는 연말마다 항상 집에서 TV만 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상 받고 패러디하는 모습을 보곤 했었죠. 그런데 지난 연말에는 정말 따뜻하게 보냈어요. 이제 제 개인적인 시간 따위는 없습니다. 하하하. 일단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영스트리트' DJ 제안이 왔을 때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고향을 질러댔다는 이국주는 "정확히 7년 전부터 라디오 DJ를 꿈꿨다"고 말했다. "사실 개그우먼을 꿈꾼 적은 없어요.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그 방송을 빨리할 길이 바로 개그였고, 개그를 하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오히려 뭔가 목표를 가지고 달려온 꿈은 DJ였어요. 노사연-지상연 선배의 MBC 표준FM '2시 만세' 고정 게스트를 맡으면서부터 라디오에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창때는 5개에 달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게스트를 맡았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 갈까 싶어 쉬지도 못했다 는 게 이국주의 설명이다. 기자간담회에서도 특유의 흥을 감추지 못하던 이국주는 '영스트리트' DJ에 매진하기 위해 "돈 버는 행사 출연을 모두 다 중단했다"고 강조했다. 이국주는 "제작진만 괜찮다면 주말도 모두 방송을 위해 반납할 수 있다. 제작진이 주말 제작이 어려우면 제가 혼자서 키를 울리고 내리고 노래까지 다 내보낼 테니 시간만 달라"면서 능성스러운 면모를 보였다. "영스트리트"는 같은 시간에 소녀시대 씨니의 MBC FM4U '씨니의 FM데이트', 배우 유인나가 진행하는 KBS 쿨FM '유인나의 불륜을 높여요'와 맞붙는다. 셋 중 "가장 무겁게 있는 DJ가 될 것임을 자신한다"는 이국주가 내세운 무기는 '화이팅하는 DJ'다. "제 모든 걸 보여 드리고 싶어요. 저를 찾는 분들은 힘과 에너지를 얻으려는 분이 많다고 생각하기에 화이팅하는 DJ가 되고 싶다. 라디오를 잔잔하게 듣다가 잠드는 것도 좋지만 우다 치져서 잠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하하하. 제 라디오는 2주 정도면 다들 익숙해질 것 같아요.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해주면서 남녀와 나이 모든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요." 이국주는 이와 함께 "보통 라디오는 대본이 있는데 '리얼'로 하고 싶다"면서 "진행하다 중간에 배가 고프면 밥을 먹을까도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꼭 초대하고 싶은 연예인으로 작년 말 행사장에서 우연히 만난 배우 송승헌을 꼽은 이국주는 '사심 방송'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제작진은 "이국주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전형적인 이미지 뿐 아니라 사람 냄새 나고, 청취자와 울고 웃는 이국주의 모습도 자주 보여 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